



9일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거뱅크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7회말 2사 1루에 KIA 버나디나가 투런 홈런을 때리고 홈에서 김주형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걱정 덜었다 버나디나 첫 홈런...한국 무대 적응 끝

걱정 늘었다 마무리 임창용 연이틀 흔들...불펜 불안



KIA, 한화에 3-2...양현종 2승

기다렸던 '샤크' 버나디나의 한방이 터졌다.

KIA 타이거즈가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3-2 역전승을 거두며 워닝 시리즈를 만들었다. '신입 호랑이' 버나디나가 시즌 첫 홈런을 결승홈런으로 장식하면서 한국 무대 적응이 끝났음을 알렸다.

경기 초반은 KIA 양현종과 한화 이태양의 힘겨루기 양상이었다.

결과는 7이닝 1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온 양현종의 판정승, 9피안타를 남긴 양현종의 2·5회를 빼고 매 이닝 주자를 내보낸

서 위기를 맞았지만 '이적생' 포수 김민식이 두 개의 도루를 저지하는 등 수비진의 도움으로 1실점으로 두 번째 등판을 마무리했다.

4번 타자 최형우를 양벽 봉쇄한 이태양은 1-1로 맞선 6.1이닝 1실점으로 등판을 끝냈다. 양현종이 7회까지 버티면서 승리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버나디나의 시원한 지원 사격이 있었다.

첫 타석에서 우전 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까지 성공하며 스타트를 끊었던 버나디나가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 5회 세 번째 타석은 1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하지만 7회 2사 1루의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버나디나는 이태양에 이어 등판한 박정민을 상대로 2볼-1스트라이크에서 137km 직구를 공략했다. 배트를 떠난 공은 우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한국무대에서의 첫 홈런 포가 됐다.

양현종이 기본 총계 2연승을 달렸고 버나디나의 마수결이 홈런도 터졌지만 마무리 고민에 힘겨운 주발 3연전이었다. KIA는 지난 7일 헛타가 시즌 첫 완투승

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며 잠시 불펜 고민을 잊었지만, 8·9일은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8일에는 7회 한승혁이 견제 실책과 폭투에 발목이 잡히면서 동점을 허용했다. 김선빈의 희생플라이로 3-2로 9회를 끌고 갔지만 마무리 임창용이 1이닝 3피안타 1볼넷 2실점으로 두 번째 불륜세이브와 함께 패전투수가 됐다.

9일에는 한승혁이 연속 안타로 자초한 8회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3-1에서 임창용에게 마무리를 넘겨줬지만, 이번에도 실점이 쓰였다. 불넷으로 선두타자를 내보낸 임창용이 안타와 희생플라이로 실점을 기록했다. 김선빈의 실책성 플레이까지 더해지면서 마무리 임창용은 결국 9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심동섭이 승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진땀을 거두기는 했지만 KIA는 지난 삼성 워닝 시리즈에 이어 다시 한번 쓸쓸한 워닝 시리즈를 남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가 3-2, KIA의 승리로 끝나면서 결승타가 됐다. 버나디나는 "칠 수 있는 공이어서 칠 수 있었다. 어제도 봤던 투수라서 적응이 됐다"며 "타격 포인트가 앞에 있었고, 공이 휘어나가서 홈런이 될지는 몰랐다"고 홈런 순간을 말했다.

개막 후 세 경기에서 2개의 안타를 때리는 데 그쳤던 버나디나는 볼넷 하나 없이 6개의 삼진을 기록하면서 우려를 샀다. 하지만 지난 6일 SK전 멀티 히트를 시작으로 4경기 연속 안타에 이어 홈런까지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버나디나는 "적응해 가고 있다. 영상도 많이 보면서 공부했다. 그동안은 스윙이 너무 길어서 공을 쫓아가는 모습이었다. 짧게 해서 공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양현종이 기본 총계 2연승을 달렸고 버나디나의 마수결이 홈런도 터졌지만 마무리 고민에 힘겨운 주발 3연전이었다. KIA는 지난 7일 헛타가 시즌 첫 완투승

호수비 김주형 "팻딘이라서 집중했다"

덕아웃 T 특특

▲수석코치가 밎나? = 훈련 시간 평소 배트를 든 조계현 수석 코치의 눈길이 분주했다. 누군가를 찾던 조 수석 앞에 마침 자리를 하고 있던 신종필. 조 수석은 "네가 그랬지?"라면서 전용 핑고 배트를 들어 보였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라며 고개를 젓던 신종필을 향해 조 수석은 "손잡이 부분이 벗겨져 있다. 이 건 분명히 스파이크로 찍은 자국이다. 수석 코치가 밎나?"며 웃었다.

▲왜 저기에만 칠까 = 개막 첫 날 두 개의 홈런을 몰아쳤던 나지완. 이후 기다리던 한방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끊임없는 타구는 몇 차례 나왔지만 담장을 넘기에 조금 부족했다. 나지완은 지난 8일 한화전에서 챔피언스필드 가장 깊은 곳으로 두 차례 공을 날렸다. 상대 중견수 장민석의 호수비까지 더해지면서 결과는 모두 중견수 플라이아웃. 나지완은 "왜 저기에만 칠까"라며 아쉬워했다.

▲팻딘이라서 =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이범호를 대신해 3루를 수석하고 있는 김주형. 좋은 수비로 이범호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그는 8일에도 실점을 막는 결정적인 수비 장면들을 연출했다. 그는 "(선발이) 팻딘이라서 정말 집

중을 많이 했다. 땅볼 타구가 많아서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수비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편으로는 앞선 등판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김주형은 지난 1일 삼성전 적시타와 좋은 수비로 팻딘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9회 실책을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이후 불펜진이 대거 7실점을 하면서 팻딘이 승리를 날렸었다.

▲센터 출신입니다 = 9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앞서 진행던 훈련. 외야에서 부지런히 공을 쫓는 두 사람이 있었다. 외야 평고를 받던 두 사람은 투수 심동섭과 흥건희였다. 큰 실수 없이 부지런히 글러브로 공을 낚아채던 심동섭은 "센터 출신입니다. 제가 공은 잘 쫓습니다"며 승겨져 있던 수비 실력을 과시했다.

▲특타치고 있더라 = 초반 타격 슬럼프로 1할대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김주찬. 김기태 감독은 "어제 경기 끝나고 보니까 (주찬이가) 특타를치고 있더라. 아직 이십몇 타석밖에 안 들어오니까"라며 김주찬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 김 감독은 또 "최형우와 나지완이 자아발전 시간에 나와 훈련을 했다. 그래서 감독도 빨리 나와야 했다"고 웃었다. 김주찬은 이날 마지막 네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치면서 이번 한화와의 주중 3연전 처음이자 마지막 안타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

넥센 이정후 "아빠, 제가 더 빠르네요"

19살에 프로 첫 홈런

이종범은 20대 초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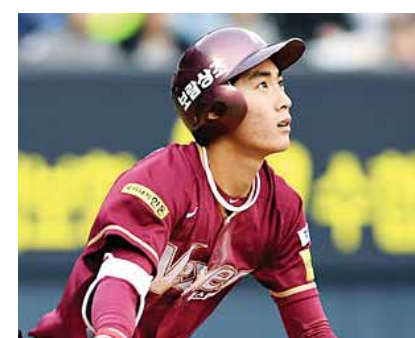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신인 이정후(19)는 앞으로 야구 하며 쌓는 수많은 '최초'의 기록마다 아버지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KBO리그 역대 최고의 호타 준족 선수인 이종범(46)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기 때문이다. 이정후는 우선 '홈런'에서 아버지를 앞질렀다.

이정후는 지난 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방문 경기에서 2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3안타 5타점으로 '필필' 날았다. 3안타 가운데 2개가 홈런이었다.

이정후는 프로 데뷔 7경기 만에 터진 홈런으로 1993년 17경기 만에 홈런을 친 아버지보다 10경기나 빨랐다.

경기 후 이정후는 "저도 홈런을 치고 놀랐다"면서 "앞에서 배트 중심에 맞히자는 생각만으로 쳤는데, 중심에 맞으면서 공이 넘어갔다. 얼떨떨하다. 어떻게 넘겼는지 모르겠다"고 첫 홈런 순간을 떠올렸다. <연합뉴스>



'아버지보다 10경기 먼저 홈런을 쳤다'는 말에는 "나일로 치면 더 빨라요. 저 이제 19살 인걸요"라는 재치있게 답했다.

이종범은 1993년 대졸 신인으로 20대 초반에 프로 무대에 뛰어들었고, 이정후는 올해 2월 휘문고를 졸업한 고졸 신인이다.

KBO리그 최초의 '부자 1차 지명' 기록을 보유한 이정후(2017년 넥센)와 이종범(1993년 해태)은 프로 첫 홈런을 나란히 잠실구장에서 친 전기록까지 쓰게 됐다.

리그를 대표하는 '호타준족' 이종범은 프로 데뷔 첫해 홈런 16개를 쳤고, 2011년을 끝으로 은퇴할 때까지 통산 194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10·11호골...亞 첫 EPL 시즌 두자릿수 득점



토트넘의 손흥민이 지난 8일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6-2017시즌 EPL 왓퍼드와의 홈경기에서 4-0으로 이긴 뒤 동료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토트넘)이 왓퍼드전에서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0호 골을 작렬했다.

손흥민은 지난 8일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6-2017시즌 EPL 왓퍼드와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앞선 전반 44분 득점포를 터뜨려 3-0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3경기 연속득점으로,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한 시즌 정규리그 두자릿수 득점을 올린 것이다.

손흥민은 전반 33분 델리 알리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고 6분 뒤 과감하게 슈팅한 공이 수비수를 맞고 굴절, 에릭 다이어가 페널티 아크에서 오른발 슈팅해 추가골을 넣었다. 이어 전반 44분 직접 골까지 넣으며 손흥민은 전반전 팀의 3골에 모두 관여했다.

손흥민은 시즌 전체 득점 17호골을 기록, 2014-201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기록했던 개인 최다 득점(17골)과 동률을 이뤘다. 정규리그 7경기를 남긴 손흥민은 지금의 상승세라면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랭킹 톱10에 진입할 가능성이 전망이다.

지난 6일 스완지시티를 상대로 정규리그 9호골을 터트리면서 기성용이 2014-2015시즌 세웠던 기존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한 시즌 최다골(8골) 기록을 넘어선 데 이어 이날 10, 11호골을 몰아치며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무



대에서 한 시즌 첫 두 자릿수 득점의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제 남은 기록은 차범근과 박지성의 득점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다.

박지성은 8시즌 통산 27골(정규리그 19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에서 총 15골(2015-2016 시즌 4골·2016-2017 시즌 11골)을 포함해 컵대회 등을 합쳐 총 26골을 작성했다. 이제 1골만 더 추가하면 박지성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더불어 '레전드' 차범근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작성한 한 시즌 최다골(19골) 기록에도 한 골 차로 바짝 다가섰다. <연합뉴스>

김현수 '영양만점' 3안타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역전 적시타를 쳐내는 등 경기에서 3안타를 몰아쳤다.

김현수는 9일(이하 한국시간)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에서 7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3안타 1타점을 올렸다.

개막 후 2경기에서 5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던 김현수는 시즌 마수결이 안타와 첫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동시에 신고했다.

양키스의 일본인 애시스 다나카 마사히로와 맞대결한 김현수는 0-2로 뒤진 2회말 2사 1루에서 우전 안타를 때렸다.

4회말 2사 1루에서 다나카와 다시 상대한 김현수는 4구째 슬라이더를 받아 쳤고 내야안타가 됐다.

김현수는 그러나 팀이 2점을 만회해 3-4까지 추격한 5회말 1사 만루에서는 서서 삼진을 당했다.

4-4 동점이 된 7회말 2사 1루에서 리그 정상급 불펜 투수인 델린 베타시스를 상대한 김현수는 1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 카운트에 물렸지만 4구와 5구째 유인구를 잘 잡아냈다. 5구 윌바운드 공 때는 1루 주자 웰링턴 카스티야가 2루까지 진루해 득점권 기회도 생겼다.

결국 김현수는 6구째 너를 커브를 받아쳐 우중간에 떨어지는 역전 적시타를 날렸다. <연합뉴스>

류현진 14일 컵스전 선발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이 2016년 월드시리즈 챔피언 시카고 컵스를 첫 승 사냥에 나선다.

다저스는 9일(이하 한국시간) 게임노트에 선발 투수 등판 일정을 올렸다. 다저스는 류현진을 14일 컵스와 방문 경기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류현진은 지난 8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쿠어스필드 방문 경기에서 시즌 처

음 등판해 4.2이닝을 6피안타(1피홈런) 5탈삼진 2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경기 뒤 현지 언론 대부분은 류현진이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소화하고서 14일 컵스전에 등판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발 맞대결 상대는 함께 다저스 재할 군에 있었던 좌완 브렛 앤더슨이다.

2015, 2016년 다저스에서 뛴 앤더슨은 2015년 10승(9패)을 올렸지만 2016년에는 허리 부상으로 1승 2패로 고전했다. <연합뉴스>